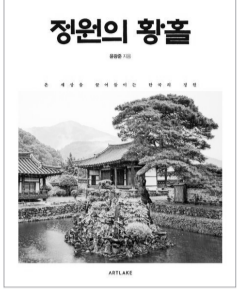


# 자연스럽게 풍경에 녹아든 우리 정원의 美

## 정원의 황홀

윤광준 지음



“자연을 끌어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으로 들어가 동화되고 싶은 게 우리 정원이다. 애써 다듬거나 인위적으로 가지를 잘라 모양을 내는 일은 최소한에 그친다. 나무와 화초는 자연의 순환과 변화의 시간들을 이어가고 사람은 지켜볼 뿐이다. 삶의 시간을 비추는 거울로 자연만큼 맑은 것은 없다.”

윤광준 작가는 불혹을 넘어서며 ‘정원이란 아름다운 세계를 조각했다. 일본 정원으로 이름난 아다치(足立) 미술관을 찾은 이후 ‘왜 인간은 정원을 만들며 정원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궁금해진 작가는 20여 년 동안 틈틈이 전통 정원과 해외 정원들을 찾아다녔다. 이러한 발품 속에서 정원이 작가의 삶 속으로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특히 우리 정원의 아름다움과 독특함을 깨닫게 됐고, 별서정원과 근대정원에 관심을 갖게 됐다.

앞서 ‘심미안 수업’과 ‘내가 사랑한 공간’ 등을 펴낸 남다른 안목의 작가는 ‘한번 가볼 만한 우리의 정원이거나 아름다움이 남지는’ 정원을 가운데 인상적인 22곳의 한국 정원을 신간 ‘정원의 황홀’에 담았다. 신간은 1부 ‘독특한 매력을 품은 한국정원과 세계의 빼어난 정원’, 2부 ‘우리나라의 누정과 별서를 찾아서’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1부에서 이웃나라(중국·일본) 정원과 영국·프랑스 등 해외정원과 한국정원을 비교한다. 19세기 일본은 서양의 가든(Garden)을 ‘집안에 있는 동산’이란 의미의 정원(庭園)으로 번역했다. ‘담장 안쪽의 뜰’로 정원을 한정된 일본과 달리 조선 정원은 자연과 경계를 두지 않고 드러 있었다. 한국은 원경(遠景), 일본은 중경(中景), 중국은 근경(近景)을 중시했다. 저자는 ‘섭렵의 숫자가 늘어나니 외려 한국 정원의 아름다



‘담장을 치워 자연과의 경계를 틈 인공의 숲’인 화순 임대정 원림. (아트레이크 제공)

움과 매력에 더 크게 다가왔다”며 “돋보이는 건, 혈령해서 편안하고 여유롭다는 점이다”라고 밝힌다.

2부는 일제강점기 지식인이 세운 밀양 삼은정을 비롯해 아산 외암마을 송화대, 안동 하회마을 병산서원 만대루, 함안 무기연당, 영덕 침수정, 대구 사유원 등 22곳의 우리 정원 매력을 소개한다. 이 가운데 전남 지역 담양 소재원과 보성 강굴마을 열화정, 담양 명옥헌, 화순 임대정 원림도 포함돼 있다.

저자가 본 한국정원의 특징은 ‘움직임을 최소화시킨 건물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게 하는 것’과 ‘자연스러움’이다. 선조들은 ‘주변의 경치를 끌어들이는 정원조성 기법’인 차경(借景)으로 멀리 있는 산을 눈앞에 끌어들이 ‘조망형 정원’을 지었다. 특히 정자나 누각의 안팎을 비워놓는 까닭에 대해 “느낌은 초원지대에서 살았던 ‘북방 기마민족의 기질’이라는 가설을 세우기도 한다.

“건물을 지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벽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버린 이유다. 눈앞을 가리는 장애물을 없애야 바깥이 잘 보이게 된다. 답답함을 참지 못하는 우리의 기질은 누각과 정자란 건물에서 완성되었다. 믿거나 말거나 내가 세운 가설이다.”

저자는 화순 임대정 원림에 대해 “지형을 그대로 살려 정자와 연못만을 파서 만든 정원은 뜬금없이 데이비드 보위가 출연한 영화 ‘라비린스’의 미로를 연상시켰다. 동화적 상상력의 공간을 들어가 본 기분이었을까”라고 묘사한다.

저자는 우리 땅 곳곳에 자리잡은 정원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풀어낸다. 저자가 직접 카메라에 담은 각 우리 정원의 서정적 사진을 또한 정원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한다. 독자들을 우리 땅에 아무렇지 않게 자리 잡고 있는 정원들의 매력 속으로 시나브로 빠져들게 만든다.

(아트레이크·2만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금오신화=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했다는 비보에 통곡하며 ‘양광(佯狂·미친 척하기)’을 택했던 김시습은 중이 되어 8년간 방랑하다 소설에 매진한다. 그의 작품에는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여주인공, 염라대왕과 대면하는 인물 박생 등이 등장하는데 이는 모두 김시습을 상징한다. ‘만복사저포기’, ‘취유부벽정기’를 비롯해 ‘남염부주지’, ‘이생규장전’ 등 대표작에 활용한 은유적 메시지를 살펴본다. <둘베개·1만7000원>

▲2025 세계대전망=다사다난한 한 해, 특히 다양한 선거가 있었던 2024년이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새로운 변혁을 예고했던 전 세계 지도자들이 새해 어떤 정책을 통해 리더십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으로 인해 ‘트럼프 2.0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인이나 CEO, 학자 등의 각양각색 의견을 통해 신년 집중해야 하는 열 가지 국제사 트렌드를 분석한다. <한국경제신문·2만3000원>

▲우리 동네 민주 시민=민주주의 시스템과 정치교육이 발전한 독일의 실제 이야기에서 배움을 얻는다. 독일의 학교나 도시공동체, 정당 등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나 제도를 훑어보며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는 정치교육의 현주소를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은 논의 측면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청사건이나 제도적 계획은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정치교육에 대해 새로운 바로미터를 세운다. <지식의날개·1만8800원>

▲사랑은 모든걸 이기니까요=상호 혐오나 비판, 결핍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힘을 때때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있게 만들고 위로하는 가장 큰 요소 ‘사랑’의 중요성을 사례 위주로 들여다본다. 저자가 살아오며 얻은 가치인 ‘나 자신을 사랑하기’나 ‘글을 쓰며 점차 좋은 사람이 되어가기’ 등 다양한 방법을 알려준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임을 강조한다. <FIKA·1만88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이렇게 중학생이 됩니다=6학년 학업을 운영하는 18년 차 교사가 학생들을 마주하며 축적해 온 노하우를 담은 에세이집. 사춘기를 거치며 교우관계와 중학교 입학 등으로 고민 많은 6학년 학생의 어려움을 ‘학교중이 알림장’을 통해 해결했던 일화를 소개한다. 학생들과 수학여행을 떠났던 일화부터 교내 선거 과정, 글쓰기 수업 등을 기획했던 사례를 담았다. <서해문집·1만4800원>

▲무무의 마법 케이크 가게=눈앞으로 불리는 무무의 마법 케이크 가게에는 쿠키와 케이크가 가득하다. 이곳에서 일하는 무무는 늘 바쁘고 정신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미미라는 작은 고양이가 일을 도와주러 오면서 조금씩 일상이 변화한다. 미미에게 무무는 점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열두 달 생일 케이크’를 선물하기 위해 부업으로 향한다. <한빛에듀·1만6800원>

▲밥상의 역사=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나 물에서 난 조개를 수확했던 태초의 밥상에서 시작해, 곡식을 재배한 과정을 거쳐 한식의 기틀이 잡히기까지 과정을 들여다본다. 요즘 어린이 세대가 좋아하는 패스트푸드의 유혹이나 치킨, 라면, 공장 식품 등 식품 문화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둘러보고 산업화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다림·1만3000원>

# 소소한 일상에서 길어올린 45편의 수필

## 그 섬의 예술가들

김향남 지음



광주일보 지면의 인기 코너 중 하나는 ‘수필의 향기’다. 박용수·김향남 두 수필가가 매주 필요일 격주로 참여해 소소한 일상의 모습을 전해주는 글을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모습도 한번쯤 돌아보게 된다.

김향남 수필가가 지금까지 써 온 글들을 모아 수필집 ‘그 섬의 예술가들’을 펴냈다. ‘나비에게 묻고 싶은 것’ 등 4부로 구성된 책에는 모두 45편의 글이 실렸다.

“글쓰기란 흠어진 조각들을 꿰어내고 나름의 질서를 세워보는 것, 그렇게 하고 난 뒤 느끼는 의외의 개운함 혹은 뿌듯함”이라 여기는 작가는 어머니가 자투리전을 이어 선과 면과 색채의 조합이 마치 ‘작품’ 같은 조각보

를 만들었듯, 주제나 소재가 제각각인 자신의 글도 누군가에 다양한 방식으로 읽히길 바란다.

표제작으로 삼은 ‘그 섬의 예술가들’은 낙월도(洛月島)에 살고 있는 예술가, ‘엽낭개’가 주인공이다. 모래사장엔 구멍을 파고 무리 지어 살아가며 썰물 때가 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수십만의 군대처럼 먹이 활동을 하는 엽낭개는 “해변의 청소부이자 독특한 예술가”였다. “그들이 빚어 놓은 무수한 알갱이들은 환경정화의 흔적이며 그 자체로 거대한 예술품이 되었”고 작가는 그들의 움직임에서 “제 몸을 살리고, 제 삶의 터를 살리며, 제 삶의 무늬로써 못 생명을 살려내고 있는 존재”를 본다.

일상에서 길어올린 이야기도 눈길을 끈다. 동네 과일 가게 아저씨(‘빨간모자’), 일주일에 두 번씩 찾아오는 호떡차에 얽힌 이야기(‘호떡이 있는 풍경’), 담양 금성산의 작은 산사를 찾아 느끼는 여유(‘불발처럼’) 등이 모두 글의 소재가 됐다. 또 방학숙제가 밀려 일기를 한꺼번에 써내려간 아이에게 받은 ‘효도 각서’를 통해 하는

로 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는 등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좋아하는 영화와 책 등도 글의 소재가 됐다.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묻는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원더풀 라이프’, 옛 여성들의 삶을 노래한 ‘화전가’ 중 ‘맨둥어미 화전가’, 레오리오니의 동화 ‘프레드릭’ 등이 연결고리가 돼 글이 완성됐다.

책의 마지막에 실린 글은 ‘한 은퇴자의 글쓰기와 기록의 쓸모’다. “한 존재의 일상과 그 세계를 정치하게 다루는 것이 수필이기에 존재의 고유함을 담은 수필집은 필부필부의 삶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일깨워준다”며 글쓰기와 기록의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지난 2000년 ‘에세이스트’에서 신인수필가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김 작가는 ‘李 鈺 문학 연구’, ‘수필의 이야기 방식’ 등을 펴냈다. 현재 무등수필, 북촌시사, 수필미화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소소담담·1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